

## 한국 전통 표장에 쓰이는 유소(流蘇)의 제작 기법

박지선 · 전지연

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 및 용인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

### YUSO's Making Technique Used in Korean Traditional Hanging Scroll

Chi-sun Park and Ji-Youn Chun

*Jung-Jae Conservation Center and*

*Department of Conservation of Cultural Properties, Yong-In University*

유소(流蘇)란 원다회(圓多繪)로 매듭을 맺고 그 끝에 술을 드리우는 장식품으로, 가마, 상여, 국악기 등에 사용되었다. 조선시대 초상화 족자에서는 양옆을 드리우며, 족자걸이끈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데, 일제시대를 걸쳐 한국의 전통문화가 단절됨에 따라 이 유소의 쓰임새 역시 사라지게 되었다. 최근 조선시대 족자의 전통형식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유소의 제작기법을 재발견, 복원할 수 있었다.

유소의 형태는 크게 끈부분, 머리부분, 술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, 이 머리부분은 다시 원·기둥·원의 세부분으로 나뉜다. 이 원부분의 부드러운 곡선과 기둥을 둘러싼 망부분의 표현을 재현하기 위해 여러 재질을 사용해 보았으나, 결국 머리부분의 곡선은 종이, 풀, 실 만이 나타낼 수 있는 자연스러운 표현이며 기둥은 기존의 매듭방식이 아닌 망뜨기 방식이었다. 염색 또한 자연염색을 몇 가지로 나누어 다채롭게 표현하고 있으며, 유소의 형태 역시 몇 종류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. 여기서는 우선 숙종대에 전통표장으로 만들어져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이만유(李萬圃, 1684~1750) 영정에 쓰여진 유소를 복원하는 과정과 그 제작기법을 밝히고자 한다.

유소제작 : 민정식